

수치심은 공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 마사 누스바움(M.Nussbaum)의 수치심 논의를 중심으로 -*

김지현**

〈차 례〉

1. 머리말
2. 누스바움의 논의에서 수치심의 도덕적 지위
3. 수치심의 긍정적 기능
4. 공적 영역에서 수치심의 활용 가능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감정 중 하나이다. 동시에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치심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때로는 더 나은 자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서구의

* 논문의 심사를 통해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전통적 관점은 수치심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논의보다 부정적 영향에 치중된 경향을 보였다. 이 글의 목적은 공적 영역에서 수치심의 활용을 불허하는 누스바움의 입장을 비판하고 성숙한 상호의존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건설적 수치심의 활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숙한 자기의식이 반영된 건설적 수치심에는 과도한 충동이나 욕구로부터 행위자의 자아를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건설적 수치심이 공적 감정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나르시시즘과 원초적 수치심이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한다. 둘째, 수치심과 관련된 이상적 상태를 도덕성의 영역에 한정하고 여과, 정화,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셋째, 법적 영역에서 처벌은 건설적 수치심의 자발적 자각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넷째, 원초적 수치심이 훼손할 수 있는 우리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성을 인정하고 공론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주제어: 누스바움, 수치심, 자기의식, 취약성, 연민

1. 머리말

최근 미국의 한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다.¹⁾ 그는 한국이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부분

1) <https://www.youtube.com/watch?v=JGnvVaXEh3Y>, Mark Manson,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2024.02.11. 검색)

인 물질 만능주의를 수용한 결과 지나친 경쟁 사회가 되어 한국인을 가장 우울한 국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한국인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누적된 피로와 우울감의 수준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²⁾ 외부인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사회만이 가지는 고유성이 잘못 해석될 위험이 있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자본주의의 영향력을 벗어나 살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과도한 경쟁의 폐해로 인한 곤란함에 대해서는 초국가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치심은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성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영향 없이 자신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수치심(shame)은 죄책감(guilt)에 비해 도덕 감정으로서 지위가 낮았으며 수치심의 가치는 동양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구에서도 수치심의 도덕적 지위와 긍정적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진행되어 기존의 수치심과 죄책감 논의에 대한 반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마사 누스바움(M.Nussbaum)의 수치심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치심의 긍정적 가치를 추출, 확장하여 공적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누스바움의 수치심과 관련된 연구는 유학의 부끄러움과 비교를 시도하거나 누스바

2)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이며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37위이다. 통계청이 보고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민들이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5점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2084300002>, “한국인 삶의 만족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연합뉴스. (2024.02.24. 검색)

움의 수치심 논의가 가진 한계에 대한 비판, 또는 자존감과 자기 인식의 확장을 통해 수치심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접근 등이 진행되었다.³⁾ 이러한 연구들은 누스바움의 수치심과 동양의 부끄러움을 비교하여 수치심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지나치게 서구 중심의 편향된 관점에 의한 것이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행위자 중심적 감정(agent-centered)으로서 수치심이 우리의 도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명하였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논의 내에서 건설적 수치심(constructive shame)의 확장 가능성이나 공적 영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치심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설적 수치심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아래 느껴지는 감정이다. 이때 느껴지는 수치심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규범과 연관되어 인간의 상호 의존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재 통합적 기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⁴⁾ 누스바움은 공적 감정으로 허용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는 혐오(disgust)와 달리 수치심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슨한 입장을 취한다. 누스바움은 수치심이 독특한 내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규범적으로 왜곡되기 쉬우며, 따라서 공적 실행의 지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수치심 중 일부는

3) 누스바움과 유학의 수치심 개념을 비교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김범원, 「누스바움 감정론과 동양 도덕 철학의 비교 연구 - 연민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70, 2023, pp. 289-322, 신은화, 「수치심과 인간다움의 이해-누스바움과 맹자의 수치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88, 2018, pp. 317-335, 이경배, 「부끄러움의 윤리학」, 한국하이데거학회, 『현대유럽철학연구』, 64, 2022, pp. 251-286. 누스바움의 수치심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문에는 다음이 있다. 권영화, 「인간의 본성과 수치심에 관한 연구」,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107, 2022, pp. 1-19. 건설적 수치심의 가능성을 탐색한 논문으로는 다음이 있다. 강경희, 「수치심의 건설적 역할에 관한 고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104-1, 2022, pp. 249-274.

4)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9(b), pp. 389-390.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목적을 지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누스바움의 논의에서 수치심의 긍정적 기능을 추출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그의 논의가 수치심에 대한 서구 중심적으로 편향된 관점을 취한다는 기존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공적 영역에 행위자 중심적 감정을 포섭함으로써 도덕적 삶에 대한 누스바움의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논자는 누스바움이 강조하는 구성원 간 성숙한 상호 의존(interdependent)의 사회가 실현되려면 수치심의 일부는 공적 감정으로 허용되어 법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누스바움의 저서를 통해 파악된 수치심의 도덕적 지위를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수치심이 갖는 주체적 자기의식이 반영된 감정으로서 특성과 객체적 자기의식이 반영된 감정으로서 특성을 드러내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도덕 감정으로서 기능을 조명한다. 제4절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수치심의 고유한 기능을 확인하며 공적 감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설적 수치심의 조건을 제시한다.

2. 누스바움의 논의에서 수치심의 도덕적 지위

누스바움은 스토아학파의 인지주의 입장에서 감정을 설명한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감정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판단이라는 인지적 요소이다. 누스바움의 감정론에서 감정은 첫째, 신체적 욕구나 단순한 기분과 달리 대상을 가진다. 둘째, 감정의 대상은 ‘지향적 대상(intentional object)’으로 감정은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셋째, 감정은 대상에 관한 믿음을 반영하며, 감

5) 위의 책, p.36.

정과 관련된 믿음들은 어떤 가치와 관련이 있다.⁶⁾ 인지적으로 이해된 감정은 가치 판단적이며 사람들이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생리적인 동요나 감각, 느낌, 기분과 구별된다. 감정은 그것이 내포하는 인지적 요소가 우리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 슬픔, 분노, 두려움에 따른 신체적 반응이나 느낌은 유사할 수 있지만, 판단에 있어서 차별화된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스토아학과와 달리 감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동물들의 감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초기 감정이 성인의 감정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받아 설명한다.⁷⁾

누스바움은 “상념의 지질학적 융기(upheavals of thoughts)”라는 프루스트(M. Proust)의 표현을 통해 감정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적인 것들로 인해 발생하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한다.⁸⁾ 감정은 주변의 대상과 사건을 관찰하면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동물적 취약성과 외부 사물에 대한 의존성과 애착을 동시에 드러낸다.⁹⁾ 인간이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은 개개인의 내력과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감정적 내용은 그 자체가 삶을 제대로 사는 것과 결부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감정의 격변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나의 행복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취약한 존재로서 우리의

6) 같은 책, pp. 55-59.

7) 마사 누스바움 지음, 이병익, 강명신, 이주은 옮김, 『연약한 선』, 서커스출판사회, 2023, p. 5.

8) 마사 누스바움 지음,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새물결출판사, 2015, p. 179.

9) 마사 누스바움 지음, 임현경 옮김,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코리아, 2020(b), p. 54.

행복(eudaimonia)이라는 목적과 관련된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갖는다.¹⁰⁾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각 감정이 가지는 비중은 동등하지 않다. 누스바움은 정신분석학을 뿌리로 하는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을 통해 수치심의 기원을 설명한다.¹¹⁾ 인간은 유아기에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성취하기에 무력한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지만 부족함을 수긍하기보다 완벽한 상태를 갈망한다. 유아는 생애 초기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나르시시즘적 좌절을 통해 원초적 수치심을 경험한다. 원초적 수치심은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자율성이 발달 된 후에도 부분적으로만 극복된다.¹²⁾ 그리고 특정 사회의 규범적 방향성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으며 성인의 감정적 삶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¹³⁾ 누스바움이 파악하기에 원초적 수치심은 나르시시즘과 연결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을 갖는다. 첫째,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의식을 낳으며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이어진다. 둘째,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역기능으로 비난할 대상을 찾아 자신의 불완전

10) 누스바움, 2019(b), pp. 102-103.

11) 대상관계이론은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하였으나 보다 관계에 집중하고 아동의 환경을 다룸으로써 문제가 있는 증상에 접근한다. 멜라니 클라인(M. Klein), 도널드 위니콧(D. Winnicott)은 생애 초기 어머니-유아의 관계 성공과 실패가 향후 아동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선, 「도널드 위니콧과 아동의 잠재적 공격성」, 건국대학교 동화번역연구소, 『동화와 번역』, 34, 2017, pp. 217-240 참고. 누스바움은 위니콧의 저작에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어머니를 둔 환자 B의 사례를 원초적 수치심의 파괴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해석한다. 이 사례에 대한 누스바움의 해석에 따르면 어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원초적 수치심을 약화 또는 강화한다. 누스바움, 2019(b), pp. 346-361.

12) 누스바움, 2019(b), pp. 338-340.

13) 마사 누스바움 지음, 박용준 옮김, 『정치적 감정』, 글항아리, 2019(a), p. 562.

성을 투사하여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드러날 수 있다.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자신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이어져 자아가 설정한 바람직한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 숨기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¹⁴⁾

누스바움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공적 처벌은 인간 존재의 취약함에 대한 원초적 수치심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적절한 도덕적 감정인 죄책감을 느끼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⁵⁾ 그러나 원초적 수치심과 구별되는 건설적 수치심은 가치 있는 도덕적, 공적 규범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인적 삶에서 소중한 도덕 감정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하지만 원초적 수치심이 배경 감정(background emotion)으로 버티고 있어서 한구석에는 나르시시즘, 타인을 향한 공격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공적 영역에서 수치심을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¹⁶⁾ 긍정적 기능을 하는 수치심과 부정적 형태의 수치심은 분리되기 어려우며 긍정적 수치심이 법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부정적 형태로 바뀌어 차별과 낙인을 유도할 가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⁷⁾

14) 누스바움, 2015, pp. 350-367.

15) 위의 책, p. 398.

16) 누스바움은 배경 감정을 '상당한 유형의 상황을 통해 내내 지속되는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배경 감정은 무수한 종류의 상황을 통해서도 지속되는 가치 평가적 판단을 내포한다. 상황적 감정은 모종의 특수한 상황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을 함축한다. 상황적 감정이 생기려면 배경적 판단이 특수한 판단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배경 감정은 나의 취약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수한 사건, 예를 들어 "엄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판단과 결합하는 경우 '엄마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상황적 감정이 될 수 있다. 누스바움, 2015, pp. 138-144.

17) 누스바움, 2019(b), p. 604.

3. 수치심의 긍정적 기능

제2절에서 우리는 누스바움이 수치심의 기원을 완전성에 대한 욕구에서 찾고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회피와 원초적 수치심의 뿌리 깊음에 주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권영화는 누스바움이 수치심을 자기에의 바탕에 타자에 대한 인식이 더해져 외부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발생하는 타율적인 감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혐오와 함께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요소로 보았다고 지적한다.¹⁸⁾ 하지만 누스바움은 수치심의 긍정적 측면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치심이 죄책감처럼 재통합이나 잘못에 대한 교정과 연결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¹⁹⁾ 다만 원초적 수치심의 뿌리가 깊고 그것의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여 공적 감정으로 기능하도록 두기에는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정이 어떤 외적 원인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측면을 부정할 순 없으나 판단을 통해 동의, 거부, 보류하는 선택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²⁰⁾ 제3절에서는 누스바움이 포섭하지 않은 수치심의 구조를 분석하여 수치심의 능동성과 긍정적 기능을 확인할 것이다.

1) 주체적 자기의식이 반영된 수치심의 구조

누스바움이 수치심을 위험하게 여기는 것은 신체적 수치심이 정신적 수치심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치심의 수동적 측면과 수치심을 촉발하는 외부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간주함에서

18) 권영화, 「인간이 본성과 수치심에 관한 연구 - 누스바움의 혐오 제거론에 대한 반론」,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107, 2022, p. 2.

19) 누스바움, 2019(b), p. 390.

20) 누스바움, 2015, pp. 86-96.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누스바움은 우리가 수치를 느낄 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는 점에서 수치심이 신체 언어적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체적 수치심은 첫째, 자기의식을 지닌 주체가 관찰 대상으로 대상화되었다는 인식을 수반한다. 둘째, 주체는 신체의 일부 혹은 전체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받는다. 셋째, 이것은 인격적 존재들 상호 간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준다.²¹⁾ 예를 들어 작품 완성을 위해 벌거벗은 몸으로 화가 앞에 선 모델이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화가의 시선에서 수치를 느끼지 않다가 어느 순간 화가의 시선이 욕정을 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 모델은 신체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감정은 모델이 자신이 화가의 성욕 대상으로 존재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판단할 때 정신적 수치와 분노의 감정으로 전환된다.²²⁾ 누스바움은 정상성이라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수치심이 뒤따르는 경우를 거론하며 신체적 수치심이 사회적 수치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장애인, 성소수자, 비만인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과정은 혐오와 수치심을 수반한다는 것이다.²³⁾ 누스바움이 수치심의 법적 활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외부로부터 비롯된 시선의 부정적 영향과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수치심을 오로지 타율적인 감정으로 규정하면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별로 느끼는 감정이 각자의 성향과 사고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고 타인의 비난이 없더라도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예술가들이 자신

21)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6, p. 189.

22) Gabrielle Taylor, *Pride, Shame, and Guilt: Emotions of self-assess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3) 누스바움, 2019(b), p. 396.

이 정해 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며 작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느끼는 감정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가에 기인하지 않는다.²⁴⁾ 수치심은 외부의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동성이 있으나 이것은 수치심의 특성 중 일부를 설명할 뿐이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수치심은 자신의 인격과 이상적 자기 모습에 대한 자의식적(self-conscious)이며 주체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황과 자신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모욕은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열등한 존재라는 진술에 ‘가해졌다’는 사고가 추가된 형식을 통해 수치심을 유발한다.²⁵⁾ 그런데 타인에 의하여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어도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대학 출신을 폄하하는 말이 오가는 자리에 그 대학 졸업생인 A와 B가 있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자신의 성취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을 학력(學歷)으로 생각하는 A는 수치심을 느끼겠지만 자신이 이룬 성취와 행복에 학력이 좋은 영향을 미쳤거나 적어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B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는 수치심의 발생이 사람들의 평가 자체가 원인이 된 다기보다 그 평가가 훼손하는 요소에 대하여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회적 멸시가 수치심을 낳기 위해서는 단죄하는 체제에 대한 주체의 내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²⁶⁾ 건설적 수치심에는 스스로 부여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 원초적 수치심에 모욕감이 따른다면 건설적 수치심에는 이상적인 자아가 훼손된다는 느낌이 따른다.

24) Taylor, 1987, p. 58.

25) 누스바움, 2019(b), p. 373.

26) 프레데리크 그로 지음, 백선희 옮김, 『수치심은 혁명적 감정이다.』, 2024, 책세상, p. 17.

2) 객체적 자의식이 반영된 수치심의 구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자의식은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수치심이 가지는 자기 의식적 감정이라는 특성은 타인과 사회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로 성립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필립 로샤(P.Rochat)는 자의식의 전개를 여섯 단계로 설명한다. 0단계는 ‘혼란(Confusion)’의 상태로 자의식이 전무하다. 개인은 거울 반영(mirror reflection)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거울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1단계가 되면 거울에 사물이 비춰 보인다는 것과 그 모습이 자신을 둘러싼 실제의 직접적인 경험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구별(Differentiation)’의 단계에서 자아 분화가 시작된다. 2단계가 되면 거울 속 모습과 자신이 인지한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상황(Situation)’ 단계에서는 혼란이 없으며 자기 탐색을 시작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식별(Identification)’을 통해 자기(self)를 확인하는 능력을 갖춘다. 아동은 거울에 비친 상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4단계에서는 ‘지속(Permanence)’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identify the self)할 수 있게 된다. 지금과는 다르게 보이는 예전의 모습에서도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자기(permanent self)를 현재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5단계가 되면 1인칭 관점뿐만 아니라 3인칭 관점으로도 자신을 볼 수 있다. ‘자의식 혹은 메타 자의식(Self-consciousness or “meta” self-awareness)’을 갖추게 되면 자신이 타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게 된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자긍심(pride), 수치심 같은 자의식적 감정들을 부른다.²⁷⁾ 자의식적 감정은 더욱 복잡

27) Philippe Rochat, “Five levels of self-awareness as they unfold early in lif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2, 2003, pp. 719-722.

한 인지과정과 자아에 대한 인식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의 분화는 생물학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자의식은 주체적 자기 인식과 객체적 자기 인식 모두를 포함한다. 로샤가 제시한 자의식 발달의 6단계는 자의식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의식은 신체에 대한 인식에서 타인이 인식하는 자기 평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승인에 대해 욕구를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사회가 제시하는 외부의 가치와 개인이 설정한 자아상은 무관할 수 없다. 테일러(G.Taylor)는 수치심의 구조가 보여주는 본질적 특징은 청중의 존재와 그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한다. 행위자가 어떤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 인식하면 수치심을 느끼면서 청중의 견해와 자신이 지위를 잃었다는 결과적인 평가를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⁸⁾ 수치심으로 인해 느껴지는 고통의 경험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은 이상적인 자신을 향해 가는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이상적 자기 모습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자긍심과 그렇지 못하였을 때 느껴지는 수치심은 모두 자기 평가가 반영된 감정이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인정과 연계된다.²⁹⁾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청렴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평가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달성하는 과정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와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

28) Taylor, 1987, p. 57.

29) 임홍빈, 2016, p. 373.

수치심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모습과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에 따른 감정이다. 조화(造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가치 경험(experience of self-value)과 타자 가치 경험(experience of other-value)이 긴밀하게 얽혀 가치에 대한 관계적 경험을 해야 한다.³⁰⁾ 스미스(A. Smith)는 인간은 이기적 본성과 이타적 본성을 가진 이중적 존재로 타인의 사랑을 받길 원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보았다.³¹⁾ 타인의 사랑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랑받을 만한’이라는 평가는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관점에서 스스로 적용하는 내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관점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관찰자가 우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통해 편파성을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건의 당사자도 해당하여 당사자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무관한 관찰자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행위를 판단할지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나의 일일 때와 남의 일일 때 모두 공평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살폈을 때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감정적 일치를 바라는 존재이고 공평한 관찰자의 승인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수치심의 자아 보호 기능

수치심의 사례 중 일부는 누스바움의 주장처럼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오로지 스스로만 알고 있는 자신의 부정직함에 수치심을 느끼듯 도덕적 가치에 어

30) Nardaniel, F. Barrett, “A Confucian Theory of Shame”, *Sophia*, 54, 2015, p. 143.

31) 애덤 스미스 지음, 김광수 옮김, 『도덕 감정론』, 한길사, 2022, p. 289.

긋난다는 주체의 인식이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테일러는 수치심을 “자기 보호적(self-protection)” 감정으로 설명한다. 행위자는 자신의 도덕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과 같은 개인적 견해를 포함한다. 따라서 자존감의 상실과 수치심을 느끼는 능력의 상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³²⁾ 누스바움은 수치심이 전체 자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존감을 중요한 배경으로 요구한다고 파악한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 없음을 숨기거나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³³⁾ 그렇다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한 타인의 시선과 그들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내면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행위자의 자아와 가치관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 그가 타율적 존재임을 의미하거나 타인의 영향력이 반드시 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수치심의 일부는 관찰자나 칭찬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추어 자신을 존중하고자 한다. 스스로 세워놓은 이상적 자아상이 있고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은 그의 주체성을 증명하는 감정으로 기능한다. 도덕적 수치심이 인격적 존재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사회적 수치심은 외부적 권위에 의한 통제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다.³⁴⁾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은 상호적

32) Taylor, 1987, pp. 69-82.

33) 누스바움, 2019(b), p. 338.

34) 임홍빈, 2016, pp. 224-225.

관계를 추구하며 감정적 교감을 거쳐 중립적 관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규제한다. 사람은 본성상 정당하게 승인됨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을 일반화된 타자의 내면화된 판결에 맞춰 조정하려고 한다.³⁵⁾

죄책감과 달리 수치심은 반드시 내가 행위자나 당사자가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문학작품은 서사를 통해 우리에게 슬픔, 연민, 분노 등의 감정을 일으킨다. 누스바움은 비극이나 디킨스(C. Dickens)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 같은 사회 고발 소설을 통해 공적 상상력(public imagination)이 형성되고 공평한 관찰자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³⁶⁾ 우리는 등장인물의 언행을 통해 그들의 품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의 모습과 경험을 비춰보게 된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영역에 죄책감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죄책감이 행위와 밀접한 감정인 한 사태를 관찰하고 있는 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치심은 다르다. 신은화는 우리가 타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를 통해 보편적 인간성의 결여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는 수치심의 특성을 타인의 인간적인 결함에 대해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과 고뇌”로 설명한다.³⁷⁾ 독자는 등장인물들의 성품에 대해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관점을 취하면서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인물과 나의 모습이 중첩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

35) 스미스는 도덕적 행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자기 통제(self-command)를 강조하며 공평한 관찰자를 “양심(conscience)”, “내부의 인간(the man within)”, “우리 행동의 위대한 재판관이자 중재자(the great judge and arbiter of our conduct)” 등으로 표현한다. 스미스, 2022, pp. 130-132.

36) 마사 누스바움 지음,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 궁리, 2019(c), pp. 25-46.

37) 신은화, 「수치심과 인간다움의 이해 - 누스바움과 맹자의 수치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88, 2018, p. 326.

다. 자신과 유사한 성품의 인물을 관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험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더불어 등장인물의 서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 자세는 우리가 타인과 다르지 않다는 보편성을 전제로 하며 나르시시즘을 경계하고 겸손의 미덕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수치심에 과도한 충동이나 욕구로부터 행위자의 도덕성을 보호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공적 영역에서 수치심의 활용 가능성

1)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관계

김요한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리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구분되기 어려우며 두 개념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는 미비하다고 지적한다.³⁸⁾ 그리고 수치심은 외적 제재에 대한 반응으로, 죄책감은 내적 제재들에 대한 반응으로 대답시키는 미드(M. Mead)의 도식을 비판하며 수치심 역시 내적 제재에 걸려있는 감정임을 주장한다.³⁹⁾ 동일한 행위가 내적 제재와 외적 제재 모두에 대한 반응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김요한의 지적처럼 인간의 실제적인 감정적 생활과 경험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중 어떤 감정에 동기화되어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인지 단번에,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어떤 감정 상태에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일은 행위 이후 후회의 감정이 느껴지거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정

38) 김요한, 「수치심과 죄의식의 구분 - G. Taylor와 H. B. Lewis의 이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66-3, 2012(a).

39) 김요한, 「수치심 문화와 죄의식 문화 - 미드(M. Mead)의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의 대답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64-1, 2012(b).

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공존하거나 한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전환되는 과정, 또는 여러 감정의 혼재된 상태를 종종 경험한다. 예를 들어 죄의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검거와 투옥의 전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자신을 향한 혐오와 타인을 향한 죄책감으로 구성된다.⁴⁰⁾

우리의 일상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혼재된 상태로 존재함에도 감정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감정이 시도하는 자기 평가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각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며 어떤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도덕적 삶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누스바움은 죄책감이 수치심에 비해 더 나은 도덕 감정이라고 평가하나 수치심은 죄책감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덕성을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과 품성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나의 도덕성을 시민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는 일에 한정한다면 죄책감만으로 충분할 것이나, 도덕적으로 권장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은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격이 되고 싶다는 욕구에 근간을 둔다.

이상적 인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덕 윤리(virtue ethics)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나 규칙이 아니라 행위자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평가와 성품에 관심을 두고 그가 어떠한 동기로 인해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덕은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와 감정은 그 자체가 도덕적 특성을 갖는다고보다 일정한 방식으로 조율될 때 형성된다.⁴¹⁾ 행위의 옳고 그름을 통해 도덕성을 평가하는 윤리 체계는

40) 김명인, 『부끄러움의 깊이』, 빨간소금, 2017.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진 도덕적 의무를 지지하지만 덕 윤리가 지지하는 유덕한 행위는 의무 이상의 행위를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의무라는 이유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과 의무는 아니지만 스스로 정립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열망하는 사람의 선은 다르다. 덕 윤리는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과 동기에서 답을 찾는다.⁴²⁾

건설적 수치심은 행위자의 탁월함, 즉 덕의 실현에 기여하는 감정으로 진실한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마땅한 감정과 상황에 주목하는 덕 윤리는 건설적 수치심의 가치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죄책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할 때 원상회복을 선택하여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치심은 보다 행위자 중심적 감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자아의 이상적 상태에 부합할 때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한다.⁴³⁾ 수치심은 타자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감정이다. 수치스러운 대상은 수치를 느끼는 자신이므로 둘의 간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따르고, 통합될 때 정체

41) 권영화, 2022, p. 14.

42) 김우영, 「덕 윤리에 있어서 도덕 판단의 기준」, 법한철학회, 『법한철학』, 80-1, 2016, pp. 49-50.

43) 누스바움, 2023, pp. 29-32. 누스바움은 덕 윤리의 특징 중 행위자의 삶 전체 과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때 발휘되는 동기와 정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누스바움은 덕 윤리(virtue ethics)라는 용어의 폐기를 주장하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덕 윤리로 포섭되는 수많은 논의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으며 둘째, 덕 윤리학자들이 비판하는 칸트와 공리주의도 덕을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덕 윤리를 공리주의와 칸트주의에 대항하는 위치에 두어 분류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이성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윤리의 이론화를 지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Martha Nussbaum, "Virtue Ethics: A misleading category?", *The Journal of Ethics*, 3, 1999, pp. 163-201. 참고.

성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⁴⁴⁾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의 도덕성에 행사하는 영향에는 중첩되는 지점이 있지만 각 감정의 고유한 영역도 존재한다. 죄책감은 수치심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잘못된 행위를 한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다가 이상적 자아에 미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행되거나 중첩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수치심이 죄책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치심은 더욱 포괄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반영하는 감정으로 보인다.⁴⁵⁾ 중요한 점은 도덕적 행위자의 삶은 수치심을 배제하고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죄책감이 회개나 속죄, 자백, 배상금 지급, 처벌 등을 통해 정화된다면 수치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신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추동한다. 죄책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내가~했다면’으로 표현된다면, 수치심은 자신의 자질에 대한 생각과 관련되어 ‘내가~였으면’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⁴⁶⁾ 죄책감이 ‘내가 허용되지 않은 행동을 하였는가?’를 묻는다면 수치심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을 판단한다.⁴⁷⁾ 죄책감이 행동 평가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치심은 성향 평가와 관련이 있다.

수치심은 현재의 자아와 바람직한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44) 하병학,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 : 수치심의 여러 얼굴들과 그 작동의 기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115, 2019, p. 198.

45) 임홍빈, 2016, p. 375.

46) Fabrice Teroni, Otto Bruun, “Shame, Guilt and Morality”, *Journal of Moral Philosophy* 8, 2011, p. 229.

47) Mark Berkson, “A Confucian defense of shame: Morality, self-cultivation, and the dangers of shamelessness”, *Religions*, 12(1)–32, 2021, p. 14

자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미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시는 A라는 행위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며 구성원들이 지닌 습관과 국민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⁸⁾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과오를 오로지 죄책감에 기대어 털어내려 하였다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과거사를 청산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전후 세대는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님에도 역사교육과 사회적 담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반성한다. 이것은 독일인들이 나치의 역사에 수치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치심은 과거의 수행 실패를 개선하여 긍정적 모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회피 동기만이 아니라 접근 동기도 유발할 수 있다.⁴⁹⁾

수치심은 일종의 감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수치심은 선을 향해 질서 지어졌을 때 자신을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죄책감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과 관련된 감정이다. 스스로가 세운 이상적인 자아상과 거리가 먼 자신의 모습은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수치심은 이러한 고통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만이 아니라 자질, 특성까지 교정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동할 수 있다. 죄책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치심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마음가짐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수치심은 수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마저도 이미 타자화된 자아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48) 누스바움, 2019(b), p. 387.

49) Lickel Brian, Kushlev Kushlev, Toni Savalei, Victoria Matta, Tomy Schmader, “Shame and the motivation to change the self”, *Emotion*, 14-6, 2014, p. 1051.

메타적 기능을 가진다.⁵⁰⁾ 수치의 감각(a sense of shame)은 덕스러움의 일종이지만 수치스러움(ashamed)은 그렇게 볼 수 없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감각은 발달 과정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수치심이 결여된(shameless) 인간은 부도덕한 인간이며 도덕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존재다.⁵¹⁾ 건설적 수치심은 자존감과 자기 충실성(integrity)을 갖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도덕적 태도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경향성을 포함한다.⁵²⁾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후안무치(厚顏無恥)의 상태는 자기기만의 상태로 도덕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다.⁵³⁾ 따라서 수치심은 우리가 스스로 세운 이상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때,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염두에 둔 것일 때 어긋난 무언가를 교정하도록 하는 내적 제재로 작동한다. 잘못을 뉘우친 사람을 두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건설적 수치심은 인격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감정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수치를 느끼는 이유는 나의 자존감을 지켜내고 싶으면서도 타인들을 중요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배경으로 하는 수치심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 기능하며, 우리 스스로 정립한 자아 이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돕는다.

50) 임홍빈, 2016, p. 18.

51) 위의 책, pp. 224-225.

52) 허라금, 2016, p. 211.

53) 이찬, 「맹목적 욕망과 자기 인식의 결여 : 부끄러움[恥]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의 성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63-4, 2011, p. 119.

2) 원초적 수치심과 건설적 수치심의 경로

누스바움이 공적 영역에서 수치심의 활용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치심이 시민들의 연민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특정 집단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배제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수치심이 근본적으로 완전한 통제력을 지니려는 원초적 욕구에 기원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유발된 수치심도 한구석에는 나르시시즘과 이와 연관된 공격성이 항상 잠재해 있어서 위험하다고 평가한다.⁵⁴⁾

수치심은 미래 지향적이고 선(善)에 대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합리적 감정이 될 수 있다. 누스바움은 수치심과 달리 분노를 법적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누스바움은 친밀한 사적관계에서 피해나 배신이 발생할 때는 분노가 아닌 슬픔을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타인을 만나는 중간 영역(middle realm)에서는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스토아(Stoa)적 태도, 즉 무심히 대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중간 영역에서 극심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법의 영역으로 넘겨야 하며 정치적 영역은 공평한 정의의 영역이므로 공동선을 위해 분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분노의 성격이 보복성을 띄어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의 복지를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 관점하에 이행-분노(transition anger)로 표현되었을 때 규범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⁵⁵⁾

분노는 그 양상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치심과 유사하다. 누스바움은 분노가 인지적 판단을 통해 공동선을 위한 합리적 감정인 이행-분노(transition-anger)

54) 누스바움, 2019(b), p. 378.

55) 마사 누스바움 지음, 강동혁 옮김, 『분노와 용서 - 적개심, 아량, 정의』, 뿌리와 이파리, 2020(a).

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원초적 수치심은 자신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내포하는 부정적 특성이 전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적절하지 못한 분노가 이행-분노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면, 수치심의 경우에는 원초적 수치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설적 수치심의 긍정적 특성을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긍정적 감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로(F.Gros)는 수치심을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에너지의 근원으로 이해한다. 수치심은 분노와 슬픔의 혼합물로 약자에 대한 멸시와 극복하기 어려운 혐오만이 아니라 고결한 분노와 정화 역시 수치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⁵⁶⁾ 수치심 가운데 순수한 분노의 뭉을 걸러내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고결한 노여움, 정화가 발휘되고 연대 의식을 갖게 된다. 그로는 프랑스 식민지 정책에 대한 내국인들의 수치심 사례는 세상에 대하여 인간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계통적 수치심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나의 행운이 타인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의 타락을 지켜보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올바른 자의 수치심이 갖는 특성이라는 것이다.⁵⁷⁾ 따라서 수치심의 긍정적 발산인 정화는 건설적 수치심의 형태로 누스바움이 지지한 이행-분노와 양립할 수 있다.

원초적 수치심의 근원이 우리의 취약성이라면 건설적 수치심의 근원은 우리의 도덕성이다. 원초적 수치심의 바탕이 되는 완벽성에 대한 욕구는 본성적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를 만든다기보다 나르시시즘적 특성과 연결이 되었을 때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과 같은 병리적 현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약한 존재임에 수치를 느낀다는 것이 변함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감정이 나르시시

56) 그로, 2024, pp. 16-17.

57) 위의 책, pp. 212-241.

증과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면 원초적 수치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초적 수치심이 배경 감정으로 버티고 있어도 그것과 결합하는 특수한 판단의 성질에 따라 건설적 수치심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적 감정은 모종의 특수한 상황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을 함축하며 감정의 대상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현실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특수한 판단과 결합하였을 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죽음과 결부되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배경 감정으로 버티고 있을 때 ‘노화는 사회에서 가치를 상실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는 사회와 ‘노화는 경험과 지혜의 축적 과정이다.’라고 판단하는 사회가 있다면 전자의 사회에서 노인은 수치심을 느끼겠지만 후자의 사회에서는 자긍심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 배경 감정인 원초적 수치심을 제거하는 일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과 결합하는 특수한 판단이 어떠한 맥락 속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상황적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

수치심이 자기반성적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자기 이상에 부합해 가도록 하는 경로를 확보하면 건설적 수치심으로 발현될 수 있다. 공적 감정에 원초적 수치심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적 상태를 도덕성의 영역에 한정하여야 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여과, 정화, 선택 과정을 거쳐 형성된 공적 감정은 공동 추론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적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다.⁵⁸⁾ 수치심이 도덕 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이끄는 견인력을 가진 감정의 특성에 합리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이성적 작용이 결합하여야 한다.⁵⁹⁾ 이를 위해 첫째, 운명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둘째, 객관성

58) 강용수, 「공적 감정으로서의 공감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탐구』, 45, 2017, p. 121.

59) 김경호, 「부끄러움의 윤리학은 가능한가?」,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

을 확보할 수 있는가, 셋째, 편향성을 제거하였는가, 넷째, 개별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거름망을 통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⁶⁰⁾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도덕과 연관된 수치심의 인지적 구조를 분석하면 ‘나는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것’, ‘그 규범은 나에게 구속력이 있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라는 인식을 포함한다.⁶¹⁾ 이러한 수치심이 다른 수치심과 구별되는 지점은 도덕규범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상호적 요구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다.⁶²⁾ 누스바움의 주장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상호 의존은 불가피하다. 인간이 공유하는 일반적 취약성을 인정하면 나르시시즘적 신념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당한 요구에 반응할 수 있다.

건설적 수치심은 에우다이모니아와 관련하여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에 기여한다. 취약한 존재들의 행복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립된다. 인간은 발달 과정을 거치며 원초적 자기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 이상(ego-ideal)을 정립하는데 성숙한 자아 이상은 자아의 정체성, 그의 인격(character)에 대한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⁶³⁾ 누스바움의 행복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에서 비롯되었다. 고대의 행복은 인간 종(種)이 지니는 보편적 개념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아리

연구』, 66, 2016, p. 385.

60) 강용수, 2017, p. 136.

61) Berkson, 2021, p. 20.

62) 고현범, 「도덕 철학에서 감정의 위상 -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3-2, 2016, pp. 77-80.

63) Amanda Wilson, “Shame, guilt, and Martha Nussbaum’s immaturing process: alethic truth and human flourishing”, *Journal of critical realism*, 19-4, 2020, pp. 381-382.

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영혼의 이성적 활동과 실천을 통해 인간 본성을 잘 실현하는 것이다.⁶⁴⁾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잘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탁월성에는 지혜나 용기처럼 개인 내부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정의와 친절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미덕들도 포함된다.⁶⁵⁾ 즉 개인주의적이고 심리주의적 편향을 보이는 오늘날의 행복 개념과 달리 고대의 행복 개념은 공동체 안에서 도모해야 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⁶⁶⁾ 누스바움은 고대의 행복 개념에서 감정과 관련된 가치평가가 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좋은 삶과 연관된다는 점을 수용한다. 행복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 맺는 소중한 사람과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⁶⁷⁾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에 기반하여 그들과 관계 맺는다. 따라서 비도덕적인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답게 행위를 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누스바움은 수치심이 자존감을 배경으로 하며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인정을 주고받는 관계와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필수적이라

6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 제7장.

65) 이진남, 「행복과 공동체」,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인격주의 생명윤리』, 11-1, 2021, p. 184.

66) 위의 논문, p. 185

67) 누스바움, 2015, pp. 78-79쪽.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세 가지 다른 견해를 펼치며 고대의 행복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현실 속의 사람들은 실제로 목표에 대하여 높은 정도의 체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 둘째, 일반적인 인간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특수화할 방법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셋째, 모든 감정이 대상의 좋음과 관련하여 성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스바움, 2015, pp. 107-113.

고 주장한다.⁶⁸⁾ 이를 통해 누스바움이 첫째,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포하면서도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적이라는 것, 둘째, 우리의 자존감은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시선의 예를 통해 신체적 수치심이 사회적 수치심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부정적인 특성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우리가 느끼는 수치의 원인을 타인의 시선으로 한정한다면 수치를 느끼는 이유는 취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약한 자아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세운 이상과 기준에 적합한 존재일 때 자긍심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과 기준은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존감은 타인과 단절된 상태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3) 건설적 수치심의 활용

(1) 공적 영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치심 선별

공적 영역에서 수치심을 활용하였을 때 편파성과 주관성을 떠는 사적 감정이 공적 감정으로 발전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적 합리성에 기여하는 감정의 속성을 파악하여 어떠한 감정이 공적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선별하여야 한다. 누스바움은 인지주의 입장에서 감정과 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스미스의 입장을 따른다. 스미스는 육체적 정념은 야수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관찰자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한다.⁶⁹⁾ 즉 감정이 공적 행위의 토대로 기능하는 것은

68) 마사 누스바움 지음,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8, p. 50.

69) 스미스, 2022, p. 123.

이성의 공적 교환에 기초해 판단을 내리는 공평한 관찰자의 감정 일 때이다. 따라서 공적 감정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치심은 공평한 관찰자의 정당한 시인이 바탕이 될 때로 한정되어야 한다. 누스바움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공동-추론(co-duction)이라는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감정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본다.⁷⁰⁾

수치심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적 수치심이 건설적 죄책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로 활용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공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건설적 수치심을 유도하는 행위는 구별된다. 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개인적 양심에 따라 성찰하는 비공식적이며 온건한 방식을 의미한다.⁷¹⁾ 사랑과 건설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교정과 달리 공개성과 적대감이 결합하여 가해지는 교정은 모욕적인 성질을 가진다.⁷²⁾ 누스바움은 배상 능력을 약화하는 원초적 수치심을 고양하는 징벌은 허용될 수 없으며 죄책감과 같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적절한 도덕적 감정을 느끼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³⁾

70) 누스바움은 부스(W.Booth)로부터 공동-추론의 개념을 도입한다. 부스는 그의 저서 『소설의 윤리(The Company We Keep: An Ethics of Fiction)』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지속적인 대화와 맥락 검토 등은 내러티브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칭하는 “co-duction”은 ‘함께(co)’와 ‘도출하다(ducere)’의 합성어이다. 누스바움, 2019(a), p. 40. 누스바움과 함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창안한 센의 용어로 표현하면 공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개적 가치 평가와 검토를 의미하는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으로 두 개념 모두 일종의 정당화 과정을 지칭한다. 아마르티아 센 지음, 이규원 옮김, 『정의의 아이디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71) 누스바움, 2019(b), pp. 444-445.

72) 누스바움, 2019(a), p. 560.

73) 수치심과 죄책감의 공통점은 자아를 겨냥한 고통스러운 감정이지만 누스바움은 죄책감을 수치심보다 더 바람직한 도덕 감정으로 규정한다. 누스

공적 영역에서 죄책감을 활용해야 한다는 누스바움의 주장은 두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 첫째, 죄책감은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감정으로 그릇된 행위에 대한 고백과 배상을 선호한다. 따라서 자신의 인격과 관련하여 행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수치심보다 지속성이 떨어진다. 자케(J. Jacquet)는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면 환경 파괴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 그는 죄책감이 도덕적 면허(moral licensing)와 죄 세탁의 기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수치심이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⁴⁾ 둘째, 법의 영역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야기하는 긍정적 효과의 기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브룩스(T. Brooks)는 살인했을 때 법정에서 죄책감을 주로 다루는 것이 때로는 수치심이 침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냉담한 사람이 수치심이 시작되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⁷⁵⁾ 윌슨(A. Wilson) 역시 누스바움의 주장은 성숙한 죄책감과 원초적 수치심의 대비이지 성숙한 죄책감과 건설적 수치심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님을 지적한다. 자신의 위법행위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한 감정에 의존하여 자신

바움에 따르면 죄책감은 첫째, 회고적이며 어떤 의도된 행동과 관련되어 있고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뭔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죄책감의 자연스러운 반사 행동은 사죄와 배상이다. 4. 죄책감은 배상하고 그런 종류의 나쁜 짓을 다시 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적인 미래를 제시한다. 누스바움, 2019(a), p. 559.

74) 제니퍼 자케 지음, 박아람 옮김, 『수치심의 힘』, 책읽는 수요일, 2017.

75) Thom Brooks, "Shame on you, Shame on me? Nussbaum on Shame Punishment",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5-4, 2008, p. 326.

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임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⁷⁶⁾ 죄책감과 수치심은 모두 건설적 방향으로 작동할 때 자신의 행동과 성격 모두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한다.

수치심의 긍정적 기능이 법적 영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설적 수치심의 자발적 자각을 촉구하는 조치와 원초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조치가 구별되어야 한다. 누스바움은 건설적 수치심의 조건으로 첫째, 수치심이 도덕적 규범과 연관되어 나르시시즘을 극복할 것, 둘째,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에 대해 인식할 것을 제시한다.⁷⁷⁾ 즉, 누스바움은 허용하는 수치심의 긍정적 기능은 행위자 자신에게 기원하였을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사회봉사나 피해자와 협의 과정에서 공동체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자신이 반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⁷⁸⁾ 누스바움은 공개적 처벌이 원초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조치로 차별과 낙인을 유도한다면, 사회봉사와 피해자와의 협의 등은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봉사와 협의는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마음, 스스로가 세운 이상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건설적 수치심을 자각하게 하는 조치에도 해당된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모두 자기의식을 수반하는 감정이지만 타자화된 자신을 전제하며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감정이라는 점에 한정하였을 때 수치심은 죄책감을 능가한다.⁷⁹⁾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원초적 수치심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한다는 이

76) Wilson, 2020, p. 385.

77) 누스바움, 2019(b), p. 390

78) 위의 책, p. 449.

79) 임홍빈, 2016, pp. 17-18.

유로 도덕적 진정성을 내포하는 건설적 수치심까지 내다 버릴 필요는 없다.

(2) 취약성(vulnerability) 스스로 드러내기

누스바움이 말하는 행복은 주관적 만족감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실현 가능한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행복 개념은 상호 의존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에게 수치심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요구한다. 우리가 취약성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길은 부족함을 은폐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취약성 중 일부는 도덕성과 관련이 있으나 다른 일부는 도덕과 무관하다. 건설적 수치심과 관련해서는 그 자각이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하지만, 도덕과 무관한 취약성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취약성을 혐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누스바움은 자유주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을 요구하지만 자신의 피부색이나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는 얼굴을 붉힐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⁸⁰⁾ 예를 들어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장애는 장애인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도덕과 무관한 취약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오히려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정체성의 요소로 수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였던 독일이 오늘날 그러한 역사에 대해 반성하듯 동일한 행동도 어떤 사회, 또는 특정 시대에서는 수치심을 느낄만하

80) 누스바움, 2019(a), p. 49.

다는 평가를 받으나, 다른 사회, 또는 다른 시대에서는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모두 취약하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의 안전과 자존감은 보호받을 수 있다. 누스바움은 건강한 감정, 자존감, 다른 시민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을 기본적 재화라고 보았다.⁸¹⁾ 따라서 법과 제도,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 바탕에 취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의 감정 공유와 구성원 간 성숙한 상호 의존이 존재할 때 수치심의 도덕적 가치가 확보될 수 있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연민(compassion)은 우리의 상상을 타자들의 선과 연결하고 타자들을 우리의 집중적 배려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의지하는 감정이다.⁸²⁾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우월함을 포함하는 동정심(pity)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가치평가를 포함하지 않는 상상적 재구성을 의미하는 감정이입(empathy)과 달리 연민은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시혜적인, 또는 베품의 태도가 아닌 호혜적 태도를 의미한다.⁸³⁾ 고대의 연민 개념에는 세 가지 인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고통은 심각한 것이라는 믿음, 둘째, 해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셋째,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가능성이 고통을 겪는 사람의 가능성과 흡사하다는 것이다.⁸⁴⁾ 누스바움은 세 번째 판단을 따랐을 때 종(種)의 경계선을 넘기기 어려우며 어떤 종류의 이방인에 대해 무심하거나 냉담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세 번째 판단을 인식론적 보조물로 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인생 목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행복주의적 판단을 연민의 인지적 구조로

81) 누스바움, 2019(b), p. 410.

82) 누스바움, 2015, p. 47.

83) 위의 책, pp. 552-553.

84) 같은 책, pp. 561-562.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⁸⁵⁾ 이러한 인지적 구조를 가지는 연민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과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그가 나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인 한 그의 고통이 나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감정이다.

건설적 수치심은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감정을 반증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의 바탕이 되어 인간 번영에 기여한다. 도덕적 이상을 바탕으로 하는 수치심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취약성에 따른 상호 의존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였을 때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나와 같이 취약한 다른 존재에 대한 공적 연민으로 진행된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에게 느끼는 원초적 수치심은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때에 따라 자기 초월과 연대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누스바움은 이상을 실현하지 못할 때 느끼는 수치심은 원초적 수치심을 강화하지 않고 그 반대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⁸⁶⁾

연민은 우리가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판단을 내포하므로 실천으로 이어진다. 우리 모두 동등하게 취약한 존재임을 수용하면 각자가 가지는 취약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의 어려움에 연민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성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 첫째, 원초적 수치심이 가지고 있는 은폐의 문제와 완벽주의의 허상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구성원들은 서로를 연민의 대상이자 의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다루었던 취약성에 대한 논의는 특정한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부각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길 바라는 방식, 즉 시혜적

85) 같은 책, pp. 578-590.

86) 누스바움, 2019(b), p. 388.

인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논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 취약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연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자리, 다시 말해 호혜적인 방식을 제안한다.

인류의 취약함은 존재하는 인간의 수만큼 다양하다. 자신의 취약함과 고통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다른 사람의 취약함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감의 확장은 구성원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 따라서 구성원이 상호 의존하는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어 구성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⁸⁷⁾

5. 맺음말

본 논문은 마사 누스바움의 논의 내에서 건설적 수치심의 확장과 수치심의 공적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누스바움이 분석하는 수치심의 인지적 구조는 부정적 기능에 더 치중된 경향이 있으나 건설적 수치심이 내포하는 단서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논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적 감정으로서 수치심의 법적 활용을 지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누스바움이 분석하는 수치심이 취약성과 나르시시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건설적 기능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절에서는 수치심에는 주체적 자기의식과 객체적 자기의식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아를 보호하고 행위자의 정체성과 밀접한 감정이라는 특징을 드러내어 수치심의 긍정적 기능을 도출하였다. 제4절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감정이 시도하는 자기 평가가 차

87) 누스바움, 2015, p. 412.

별화됨을 밝혀 수치심이 행위자의 상황과 감정에 주목하는 덕 윤리와 밀접한 감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수치심이 가지는 합리적 감정의 가능성을 누스바움이 지지한 이행-분노와 연관하여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치심 자각이 원초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조치와 구별되는 지점을 밝혔다. 그리고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연민의 감정 공유와 구성원 간 성숙한 상호 의존이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치심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적 추론을 통한 감정의 정화와 취약성을 스스로 드러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박완서의 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움을 상실한, 부끄러움을 되찾고 싶어 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오랜 시간 동안 허영과 과욕, 궁핍한 생활 조건과 천성, 도덕적 해이 등은 교차하며 그들의 수치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소설이 출판되어 우리를 부끄럽게 한 지 50년이 지났으나 오늘날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누스바움이 공적 감정 형성을 위한 교육을 강조한 만큼 이 연구를 기점으로 건설적 수치심의 확장과 관련하여 도덕적 감수성과 사회적 공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논문

강경희, 「수치심의 건설적 역할에 관한 고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104-1,

- 2022, pp. 249-274.
- 강용수, 「'공적 감정'으로서의 공감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45, 2017, pp. 119-148.
- 고현범, 「도덕 철학에서 감정의 위상 -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3-2, 2016, pp. 57-85.
- 권영화, 「인간의 본성과 수치심에 관한 연구 - 누스바움의 혐오 제거론에 대한 반론」,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107, 2022, pp. 1-19.
- 김경호, 「부끄러움의 윤리학은 가능한가?」,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연구』, 66, 2016, pp. 371-396.
- 김요한, 「수치심과 죄의식의 구분-G. Taylor와 H. B. Lewis의 이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66-3, 2012, (a), pp. 249-270.
- 김요한, 「수치심 문화와 죄의식 문화-미드(M. Mead)의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의 대립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64-1, 2012(b), pp. 307-330.
- 김우영, 「덕윤리에 있어서 도덕 판단의 기준」,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80-1, pp. 31-55.
- 신은화, 「수치심과 인간다움의 이해 - 누스바움과 맹자의 수치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88, 2018, pp. 317-335.
- 이경배, 「부끄러움의 윤리학」, 한국하이데거학회, 『현대유럽철학연구』, 64, 2022, pp. 251-286.
- 이진남, 「행복과 공동체」,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인격주의 생명윤리』, 11-1, 2021, pp. 177-198.
- 이 찬, 「맹목적 욕망과 자기 인식의 결여 : 부끄러움[恥]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의 성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63-4, 2011, pp. 93-124.
- 전혜선, 「도널드 위니캣과 아동의 잠재적 공격성」, 건국대학교 동화과번역연구소, 『동화와 번역』, 34, 2017, pp. 217-240.
- 하병학,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 수치심의 여러 얼굴들과 그 작동의 기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115, 2019, pp. 177-204.
- _____, 「인간 이해와 수치심 - 아리스토텔레스와 김상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117, 2019, pp. 215-242.
- 허라금, 「수치의 윤리, 그 실천적 함의」,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26, 2016, pp. 291-313.

- Barrett, N. F., "A Confucian Theory of Shame", *Sophia*, 54, 2015, pp. 143–163.
- Brooks, T., "Shame on you, Shame on me? Nussbaum on Shame Punishment",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5–4, 2008, pp. 322–333.
- Berkson, M., "A Confucian defense of shame: Morality, self-cultivation, and the dangers of shamelessness", *Religions*, 12(1)–32, 2021, pp. 1–23.
- Fabrice T., Otto B., "Shame, Guilt and Morality", *Journal of Moral Philosophy*, 8, 2011, pp. 223–245.
- Lickel, B., Kushlev, K., Savalei, V., Matta, S., & Schmader, T., "Shame and the motivation to change the self", *Emotion*, 14–6, 2014, pp. 1049–1061.
- Nussbaum, M., "Virtue Ethics: A misleading category?", *The Journal of Ethics*, 3, 1999, pp. 163–201.
- Rochat, P., "Five levels of self-awareness as they unfold early in lif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2, 2003, pp. 717–731.
- Wilson, A., "Shame, guilt, and Martha Nussbaum's immaturing process: alethic truth and human flourishing", *Journal of critical realism*, 19–4, 2020, pp. 380–397.

2. 단행본

- 그로, 프레데리크 지음, 백선희 옮김, 『수치심은 혁명적 감정이다.』, 책세상, 2024.
- 김명인, 『부끄러움의 깊이』, 빨간소금, 2017.
- 누스바움, 마사 지음,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새물결출판사, 2015.
- 누스바움, 마사 지음,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8.
- 누스바움, 마사 지음, 박용준 옮김, 『정치적 감정』, 글항아리, 2019(a).
- 누스바움, 마사 지음,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9(b).
- 누스바움, 마사 지음,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 궁리, 2019(c).
- 누스바움, 마사 지음, 강동혁 옮김,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뿌리 와이파리, 2020(a).
- 누스바움, 마사 지음, 임현경 옮김,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코리아, 2020(b).

누스바움, 마사 지음, 이병익 강명신 이주은 옮김, 『연약한 선』, 서커스출판상회, 2023.

센, 아마르티아 지음, 이규원 옮김, 『정의의 아이디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스미스, 애덤 지음, 김광수 옮김, 『도덕 감정론』, 한길사, 2022.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6.

자케, 제니퍼 지음, 박아람 옮김, 『수치심의 힘』, 책읽는 수요일, 2017.

Taylor, G. *Pride, Shame, and Guilt: Emotions of self-assessment*,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3. 기타 자료

Manson, Mark,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https://www.youtube.com/watch?v=JCnvVaXEh3Y>

(투고일: 2024. 10. 29 심사완료일: 2024. 12. 12 게재확정일: 2024. 12. 23)

김지현

소 속: 강원대학교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동) 인문대학 3호관 121호

전자우편: vivian1171@naver.com

[Abstract]

Can Shame be Utilized in the Public Sphere?
- Martha Nussbaum, Centering on Her Discussion of Shame -

Kim, Ji-Hyun

Shame is one of those negative emotions that humans don't want to experience. At the same time, not knowing shame implies that you are not worthy of being human. The experience of shame cannot be simply valorized, as it involves pain, but sometimes it is a powerful impetus to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However, traditional Western perspectives have tended to focus on the negative effects of shame rather than discussing its positive valu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ize Nussbaum's position that does not allow for the use of shame in the public sphere and to propose the use of constructive shame as a way to build mature, interdependent communities. To this end, I show that constructive shame, which reflects mature self-consciousness, includes the positive function of protecting the actor's ego from excessive impulses or desires. We als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guilt and propose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constructive shame to function as a public emotion. First, it blocks the pathway between narcissism and primitive shame. Second, the ideal state associated with shame is confined to the realm of morality and subjected to a process of filtering, purification, and selection. Third, in the legal realm, punishment is used to encourage the voluntary recognition of constructive shame. Fourth, create social climate where vulnerability is acknowledged and discussed in order to protect our self-regard, which primitive shame can undermine.

Key words : Nussbaum, Shame, Self-Consciousness, Vulnerability, Compassion